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 생명의 소중함 아는 세상 만들자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가 4월26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씻어내는 석가모니불 정근이 이어진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막이 올랐다.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범불교 추모제'로 전환돼 거행됐다. 어둠이 내려앉은 종로거리에 작은 등불들이 하나 둘 모이자 연등행렬이 시작됐다. 극락왕생, 무사생환 메시지를 담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단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등불을 들고 행진했다.

김형주 · 신재호 기자



①극락왕생, 무사생환의 기원을 담은 등을 앞세우고 연등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로는 수백개의 만장이 뒤따르고 있다. ②연등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③어린이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④행렬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스님이 작은 연꽃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⑤관람석에도 연등물결이 이어졌다. ⑥SNS '범불스님의 희망편지' 회원들이 아픔을 함께하고자 가슴에 추모리본을 손에 백색등을 들고 걸었다. ⑦언니·오빠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노란리본에 메시지를 적고 있다. ⑧연등행렬 선두에 선 만장들. ⑨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의식 중 조계종 집행부 스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